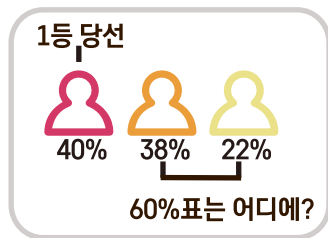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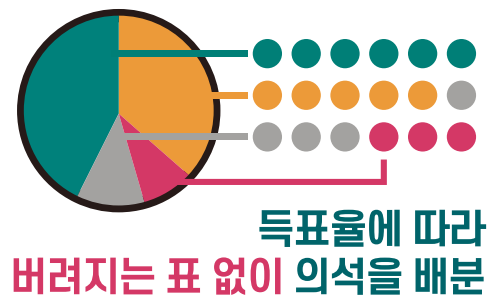


1.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 시행

소선거구제(현행)



비례대표제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에서 2등, 3등을 찍은 표는 지방·국회의원 선출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중심의 선거를 하면 거대 정당 중심으로 정치가 흘러가게 되어 정책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 지역구에서 1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의원직을 이어가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열거나 정책을 연구하기 보다 자기 지역에서 행사장 찾아다니고 악수하면서 지역구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반면 흔히 정치 선진, 복지 국가라 알려진 독일,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정당이 얻은 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비례대표제**가 일반적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지역구 중심의 ‘**1인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로 인해 기존의 **거대 양당은 실제 얻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소수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정치적 결정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20대 국회의 의원 300명 중 비례대표는 47명, 지방의회 의원은 전체 의원의 약 10% 정도입니다. 이런 식의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2. 예산은 그대로 의원 수는 늘리고

300명(현행)
연봉 1억 4700만원
개인 보좌진 9명
특수활동비 65억



360명
연봉 1억
개인 보좌진 6명
특수활동비 0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이 1억 4700만원입니다. 이는 노동자 평균 연봉(3300만원)의 네 배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는 유럽 복지국가의 국회의원들 평균 연봉은 노동자 평균 연봉보다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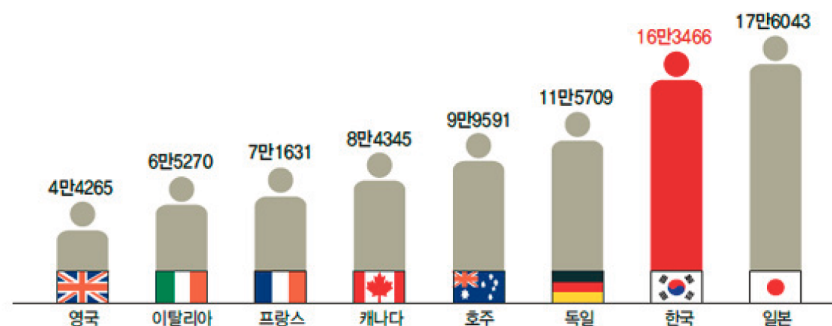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개인 보좌진을 9명 쓰고 있는데, 독일 국회의원들은 우리 절반밖에 안 됩니다. 덴마크나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개인 보좌진이 없습니다.

국회에 1년에 65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쓰고 영수증도 필요없고 어디에 썼는지 보고할 의무도 없는 돈입니다.

현재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농민,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등의 더 다양한 계층의 정치 의사를 대표하기 위해서라도 의원 정수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주요국 의원 1명당 인구수

(단위: 명) 자료: 각국 의회,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북 종합(인구기준: 2014년 7월)



〈한겨레〉

3. 만 18세 투표권



OECD 35개국 중 유일하게
만 18세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

만 18세는 운전 면허 취득, 결혼, 공무원 시험 응시,
군 입대 등이 가능한 연령입니다.

하지만 투표권 행사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18세 국민들도 교육 일자리, 주거 등 정책 결정에
유권자로서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뀌요

투표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참정권 확대

청소년들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스타프 프리돌린(Gustav Fridolin) 스웨덴 교육부 장관은

열한 살에 스웨덴 녹색당에 가입해서 8년 동안 당원 활동을 하다가 당원들한테 인정



19세 국회의원 당시의
구스타프 프리돌린

받아서 19살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 20대 후반에
당 대표가 되고 2014년에 서른한 살 나이에 교육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될 때 정치 경력은 이미
20년이나 됩니다. 나이가 어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선거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치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권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할 자유는 나이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거제도개혁

비례민주주의연대 홈페이지 www.myvote.or.kr

페이스북 '선거바꿔' @dearmyvote

비례민주주의연대 사무실 010.2726.2229

충남 홍성군 지역 담당 010.4796.7650

비례민주주의연대
www.myvote.or.kr

3. 만 18세 투표권

맨 뒷면



OECD 35개국 중 유일하게
만 18세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

만 18세는 운전 면허 취득, 결혼, 공무원 시험 응시,
군 입대 등이 가능한 연령입니다.

하지만 투표권 행사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18세 국민들도 교육 일자리, 주거 등 정책 결정에
유권자로서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뀌요

투표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참정권 확대

청소년들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스타프 프리돌린(Gustav Fridolin) 스웨덴 교육부 장관은

열한 살에 스웨덴 녹색당에 가입해서 8년 동안 당원 활동을 하다가 당원들한테 인정



19세 국회의원 당시의
구스타프 프리돌린

받아서 19살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 20대 후반에
당 대표가 되고 2014년에 서른한 살 나이에 교육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될 때 정치 경력은 이미
20년이나 됩니다. 나이가 어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선거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치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권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할 자유는 나이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홈페이지 www.myvote.or.kr

페이스북 '선거바꿔' @dearmyvote

비례민주주의연대 사무실 010.2726.2229

충남 홍성군 지역 담당 010.4796.7650

표지

선거제도개혁

비례민주주의연대
www.myvote.or.kr